2011. 6.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남아공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

1. 산업 개요

□ 남아공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24위

○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2010년 자동차 생산량은 총 47만대로 아프리카 1위, 세계 24위임.

<표-1>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2010년)

(천 대)

순위	국가	2010	순위	국가	2010
1	중국	18,265	13	이란	1,599
2	일본	9,626	14	러시아	1,403
3	미국	7,761	15	영국	1,393
4	독일	5,906	16	터키	1,095
5	한국	4,272	17	체코	1,076
6	브라질	3,648	18	폴란드	869
7	인도	3,537	19	이탈리아	857
8	스페인	2,388	20	아르헨티나	717
9	멕시코	2,345	21	인도네시아	705
10	프랑스	2,228	22	말레이시아	568
11	카나다	2,071	23	슬로바키아	557
12	태국	1,645	**24**	**남아공**	**474**

자료: 세계자동차제조자연합회(OICA).

- 차종별로는 승용차 26만대, 상용차 21만대로 상용차 비중(44.3%)이 매우 높음.

· 2010년 전 세계의 차종별 생산 비중은 승용차 75.1%, 상용차 24.9%임.

□ 상위 7개 업체의 높은 점유율

○ 2011년 5월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남아공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총 30개 업체 중 폭스바겐(Volkswagen), 도요타(Toyota) 등 상위 7개 업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2>　　주요 제조사별 판매 현황

(상위 10개사, 2011년 5월 기준)

(대)

제조사	판매량(점유율)	제조사	판매량(점유율)
폭스바겐	7,711(18.6%)	메르세데스-벤츠	2,739 (6.6%)
도요타	6,999(16.8%)	BMW	2,201 (5.3%)
GM	4,686(11.3%)	르노	731 (1.8%)
포드	3,639 (8.8%)	크라이슬러	541 (1.3%)
니산	2,888 (6.9%)	재규어 랜드로버	540 (1.3%)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of South Africa: NAAMSA).

2. 생산, 판매 및 수출 현황

□ 경기회복으로 2010년 자동차의 생산·판매·수출이 전년보다 증가

○ 2010년에 남아공은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자동차산업은 국내외 신차 수요가 증가하며 회복되었음.

- 생산량을 기준으로 승용차는 2009년보다 6.9% 증가한 26.4만대, 상용차도 12.9% 증가한 21만대를 각각 기록하였음.

<표-3>　　차종별 생산 추이와 전망

(천 대, 억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f)
승용차	321	247	264	282
상용차	242	186	210	238
경상용차	206	159	179	203
트럭	34	26	29	33
버스	1.9	1.4	1.5	1.7
총생산량(완성차)	563	433	474	520
총생산액(금액)	163	125	158	192

자료: BMI, South Africa Autos Report Q2 2011.

- 국내 판매량은 승용차가 2009년보다 24% 증가한 27.9만대, 상용차는 10% 증가한 14.2만대를 각각 기록함.

<표-4>　　차종별 판매 추이와 전망

(천 대, 억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f)
승용차	295	225	279	352
상용차	194	129	142	158
경상용차	159	110	119	130
트럭	33	18	21	26
버스	1.5	1.4	1.5	1.6
총판매량(완성차)	489	354	421	510
총판매액(금액)	125	97	119	141

자료: <표 3>과 같음.

- 수출량을 기준으로 2009년에 21.9만대로 전년 대비 22.9%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신차 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23.6만대를 기록함.

<표-5>　　수출·수입 추이 및 전망

(천 대, 억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f)
수출(완성차)	284	219	236	248
수출(금액)	51	40	48	60
수입(완성차)	225	163	197	211
수입(금액)	50	38	47	57

자료: <표 3>과 같음.

□ 2011년에도 국내 판매량 증가 등 회복세 지속

○ 2011년에도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자동차산업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14.8만대, 1~5월 판매량이 16.4% 증가한 22.8만대를 각각 기록하였음.

<표-6>　　국내 자동차 판매량 비교

(대)

기 간	2010	2011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1~3월	120,896	147,718	22.2%
4월	35,707	38,533	7.9%
5월	39,166	41,555	6.1%
총 계	195,769	227,806	16.4%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NAAMSA).

3. 주요 진출기업 현황

□ 폭스바겐(Volkswagen)

○ 1946년 남아공에 진출하여 5,0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폭스바겐(Volkswagen South Africa: VWSA)은 폴로(Polo)를 비롯하여, 제타(Jetta), 뉴비틀(New Beetle), 샤란(Sharan), 캐디(Caddy), 파사트(Passat) 아우디(Audi) 등 주요 차종을 생산하고 있음.

- VWSA는 포트 엘리자베스(Port Elizabtbeth) 근처의 유텐헤이그(Uitenhage)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2011년 5월에 18.6%로 1위를 기록함.

○ 폴로 비보(Polo vivo) 모델이 2011년 2월 2,945대가 판매되어 남아공의 최다판매차종이 되었으며, 아우디(Audi)도 판매량이 2011년 1월에 1,87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7.78% 증가하여 프리미엄 차량 부문 시장점유율이 25.6%로 상승하였음.

○ 폭스바겐은 2007년 판매량 기준 세계 3위에서 2018년까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기업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 하에 남아공에서의 생산·수출을 확대할 계획임.

□ **도요타(Toyota)**

○ 1961년에 남아공에 진출하여 현재 연 33만대의 생산능력과 종업원 7,300명을 보유한 도요타(Toyota South Africa: TSA)는 2011년 5월 판매량 기준 남아공 시장점유율 2위임. 도요타 본사가 TSA 지분의 74.9%를 보유하고 있음.

○ TSA는 더반(Durban) 공장에서 생산되는 15만대 중 7.5만대를 수출하는 등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0년 2월 코롤라(Corolla), 아우리스(Auris), 베르소(Verso) 등 주요 차종의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음.

□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

○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으로 1986년에 철수하였다가 1997년에 재진출한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South Africa: GMSA)는 현재 3,4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용차에서부터 이스즈(Isuzu) 등 경상용차에 이르는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음.

○ GMSA는 GM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 사업부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오펠(Opel), 쉐보레(Chevrolet), 이스즈(Isuzu), 캐딜락(Cadillac)의 4개 브

랜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와 전세계로 매년 약 2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음. 2011년에 7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포트 엘리자베스 공장의 생산능력을 연 5만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포드(Ford)

○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으로 1988년 철수하였다가 1994년에 재진출한 포드(Ford South Africa)는 종업원 4,400명으로, 포드 본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프리토리아(Pretoria) 조립공장, 실버튼(Silverton) 조립공장, 포트 엘리자베스(Port Elizabeth)에 위치한 부품공장 등을 운영중임.

○ 2008년 1월에 2억 달러 규모의 증자 결정, 2009년 10월 가우텡(Gauteng)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시에 따른 실버튼(Silverton) 공장 내 T6 소형 트럭 생산라인 추가 등 포드는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4. 전망

□ 남아공 경제회복 지속 전망

○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7%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외 수요의 증가 등으로 남아공 경제는 2.8% 성장하였으며, 2011년에는 농업, 제조업 등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하며 소비 증가 등에 따라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기의 회복 등에 힘입어 남아공의 자동차산업은 2010년의 생산, 내수판매, 수출의 점진적 회복세를 2011년에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임.

-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는 2011년 생산은 전년 대비 9.7%, 내수판매는 21.1%, 수출은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생산개발프로그램(APDP)으로 생산 및 투자 확대 전망

○ 2008년 9월, 남아공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새로운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인 자동차생산개발프로그램(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APDP)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012년에 만료될 예정인 현행 자동차산업개발프로그램(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 : MIDP)의 후속 계획임.

- 현재 연간 약 50만대인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120만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APDP는 완성차에 25%의 관세율 적용, 단일 공장에서 연간 5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제조사에게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의 20% 환급, 투자지원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표-7> MIDP와 APDP의 주요 내용 비교

	MIDP(1995~2012)	APDP(2013~2020)
관세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5년 65%, 49%에서 2012년 25%, 20%로 각각 인하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5%와 20%로 유지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보조금	DFA(Duty Free Allowance): 내수용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부품 수입 관세에 대하여 27%를 환급	LAA(Local Assembly Allowance): 연간 생산대수가 5만대를 초과하는 경우, 부품 수입 관세에 대하여 2013년 20%, 2014년 19%, 2015년 이후 18%를 환급
투자 지원	PAA(Productive Assistance Allowance): 제조사와 1차 부품공급업체에 대하여 5년간 연간 4%씩 총 20% 혜택	AIA(Automotive Investment Allowance): 제조사 및 부품공급업체에 대하여 3년간 6.67%씩 총 20% 혜택(2009년 7월 조기 시행)

자료: South African Automotive Benchmarking Club(SAABC) Newsletter.

○ APDP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주요 자동차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기되었던 시설투자를 재개하였으며, 이는 부품회사의 생산 및 투자 확대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APDP는 2020년까지 현지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투자 등 업체들의 장기 전략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남아공자동차제

조자협회는 APDP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의 투자규모가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책임조사역 김찬수(☎ 02-3779-5727)
E-mail: avik@koreaexim.go.kr